돌아온 '준중형 국민 세단' 외관·동력계 등 다 바꿨다

현대차 '더 뉴 아반떼' 출시

날렵한 디자인으로 페이스리프트
후방교차 충돌경고 등 안전사양↑
연비 15.2㎞/ℓ … 동급 최고 수준
"내년 하반기까지 12만대 판매 목표"

"내년 말까지 12만대를 판매 하겠다."

이광국 현대차 국내영업본부장(부사장)은 6일 경기 남양주시 스튜디오 담에서 열린 '더 뉴 아반떼' 공식 출시행사에서 "아반떼는 현대차 라인업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진 차량"이라며 "내년 말까지 국내 시장에서만 더 뉴 아반떼를 총 12만대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 뉴 아반떼는 지난 2015년 9월 출시한 아반떼(AD)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외관과 동력계를 모두 바꾸고 '국민차' 명성을 이어갈 준비를 마쳤다.

이 부사장은 "아반떼는 세대를 거치며 진화하는 동안 국내 시장에서 294만대, 글로벌 1291만대 판매를 돌파한 명실상부한 준중형 세단"이라고 자신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더 뉴 아반떼는 아반떼(AD)의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고 연비 등 실용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더 뉴 아반떼의 디자인은 '지면을 스치듯 낮게 활공하는 제트기'에서 영감을 받아 전반적으로 날렵하고 역동적인 인상을 표현하고자 했다.

전면부는 엠블럼을 강조하는 새로운 디자인의 후드(엔진룸 덮개)와 직선적이고 날카로운 모양의 헤드램프가 넓은 캐스케이드 그릴과 교차하는 형태로 강인한 느낌을 살렸다.

범퍼 하단에는 삼각형 모양의 턴시그널 램프와 검은색 에어커튼 가니쉬를 넣어 안정적이고 단단한 느낌을 강조했다. 후면부는 트렁크 끝 단을 낮추면서 기존에 트렁크 정중앙에 있던 번호판을 리어 범퍼 쪽으로 내려 시각적인 안정감을 연출했다.

실내에는 새로운 스티어링 휠을 적용하고 클러스터 하우징과 센터페시아 상단에 카본 형태를 입혀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더 뉴 아반떼는 안전사양을 높이기 위한 현대차의 노력을 느낄 수 있다.

안전사양으로는 안전하차 보조(SEA), 운전자 주의 경고(DAW), 차로 이탈 방지 보조(LKA), 후방 교차 충돌 경고(RCCW) 기능이 새로 적용됐다. 내비게이션의 검색 편의성과 정확도를 높여주는 서버형 음성인식 '카카오i'(아이)와 라디오 등에서 재생 중인 음악을 인식해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사운드하운드' 등 편의 사양도 추가됐다.

이광국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더 뉴 아반떼를 소개하고 있다.

더 뉴 아반떼는 가솔린, 디젤, LPi 등 3가지 엔진으로 운영된다. 가솔린 모델은 차세대 엔진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과 차세대 변속기 '스마트스트림 IVT'(무단변속기)가 결합해 최고출력 123마력(ps), 최대토크 15.7kgf·m의 동력성능을 갖췄다.

연비는 15.2㎞/ℓ(15인치 타이어 기준)로 동급 최고 수준이다.

디젤 모델 역시 디젤 1.6 엔진과 7단 DCT의 조합을 통해 최고출력 136마력(ps), 최대토크 30.6kgf·m의 힘을 내며 동급 최고 수준인 17.8㎞/ℓ(15·16인치 타이어 기준)의 연비를 달성했다.

LPi 모델은 LPi 1.6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의 조합으로 운영되며 최고출력 120마력(ps), 최대토크 15.5kgf·m의 동력성능을 확보했다. 더 뉴 아반떼의 가격은 1551만~2454만원으로 책정됐다.

오는 11월에는 더 뉴 아반떼가 등장하는 모바일 게임이 나온다. 가솔린 1.6 터보 엔진과 7단 DCT를 장착해 더욱 역동적인 주행성능을 갖춘 '더 뉴 아반떼 스포츠'도 11월에 출시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추석 고향길 7박 8일 시승부터 520만원 할인까지

〈한국지엠 임팔라〉

완성차업계 추석 고객 이벤트

장기 시승·경품 등 프로모션
신차 구매시 최대 11% 할인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며 고객 잡기에 나섰다. 추석 연휴기간 차량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는 물론 할인 프로모션 등 다양하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총 230대의 귀성 차량을 무상 대여해주는 '추석 맞이 7박 8일 렌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명절 귀성차량으로 지원되는 9개의 차종은 대한민국 대표 SUV 싼타페, 투싼, 코나를 비롯해 최근 새로운 디자인으로 탄생한 아반떼, 벨로스터, 쏘나타, 쏘나타 하이브리드, 그랜저, 그랜저 하이브리드 등 총 230대다.

기아차도 총 200대의 귀향 차량을 고객들에게 무상 대여해주는 7박 8일 시승 이벤트를 실시한다. 기아차는 전국 지점에서 ▲K9 ▲K5 하이브리드 ▲스팅어 ▲스포티지 ▲스토닉을 추석 귀향 차량으로 지원한다.

쌍용차는 티볼리 아머와 G4 렉스턴 등 주요 모델을 체험할 수 있는 한가위 시승단을 모집한다.

시승단이 체험하게 될 차량은 쌍용차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3개 모델로, 귀성과 귀경을 함께하며 주행성능을 비롯해 전반적인 상품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추석 연휴 시승 이벤트 진행.

특히 G4 렉스턴과 티볼리 아머는 상품성을 개선해 이달 새롭게 선보인 2019 모델로 제공된다. 또 한가위 시승단 참가 고객이 쌍용자동차 신차를 구매(오는 10월 말까지 출고 기준)할 경우 20만원 특별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르노삼성자동차와 한국지엠은 차량 구매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르노삼성은 오는 18일까지 'SM6와 함께하는 한가위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신청 후 차량 출고를 완료한 고객 중 50명을 추첨해 20만원 상당의 GS 칼텍스 주유권을 증정한다.

한국지엠 쉐보레는 9월 한 달간 선착순 4000명의 고객에 한해 최대 11%까지 할인을 제공하는 '추석맞이 쉐보레 세일 페스타'를 열고 파격적인 할인 판매에 돌입한다. 스파크는 선착순 2000대 한정 7%(최대 140만원) 할인, 말리부는 900대 한정 11%(최대 430만원) 할인, 트랙스는 700대 한정 8%(최대 27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임팔라는 150대 한정 최대 11%(최대 520만원), 이쿼녹스는 200대 한정 200만원(최대 250만원), 카마로는 50대 한정 5%(250만원)를 할인한다.

수입차 업체들도 추석 연휴 프로모션에 동참하고 있다.

인피니티 코리아는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캠페인과 함께 9월 한 달간 신규 고객 대상 특별 금융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한국 닛산은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시승을 신청 한 고객 중 만 26세 이상, 개인 SNS에 시승기를 업로드 및 공유 가능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장기 시승 당첨 고객에게는 귀성길 유류비로 10만원의 주유권도 증정한다.

한편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 타이어뱅크는 추석과 관련된 에피소드 응모를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추석 맞이 가족 자랑' 이벤트를 실시한다.

/양성운 기자

벤츠·BMW 지난달 판매량 '뚝'… 반토막

베스트셀링 브랜드는 아우디
"일부 브랜드 물량 부족 지속"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판매량 1~2위를 다투는 메르세데스-벤츠와 BMW가 지난달 판매량 감소를 막지 못했다. 양사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2018년 8월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가 1만9206대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5%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1~8월 누적대수는 17만983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5만3327대)보다 17.3% 증가했다.

브랜드별 등록대수는 메르세데스-벤츠가 3019대로 가장 많이 팔렸지만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은 42.7% 감소했다. 이어 BMW 2383대, 아우디 2098대, 폭스바겐 1820대, 토요타 1326대, 랜드로버 1311대, 포드 1049대, 볼보 906대 등으로 나타났다.

아우디 A6 35 TDI.

8월 베스트셀링 모델은 아우디 A6 35 TDI 1014대,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937대, 아우디 A3 40 TFSI 701대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유럽 차량이 1만3966대, 일본 3247대, 미국 1993대 순으로 집계됐다. 연료별로는 가솔린 9425대(49.1%), 디젤 7984대(41.6%), 하이브리드 1780대(9.3%), 전기 17대(0.1%)였다.

윤대성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부회장은 "8월 수입차 시장은 일부 브랜드의 물량 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전월 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생활에 스며든 AI… 기계와 신뢰 쌓게 될 것"

SK텔레콤 AI 컨퍼런스 'ai.x 2018'

"인공지능(AI)의 영역이 실제 세계(Real World)로 확장, 실생활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는 시대가 왔다."

SK텔레콤은 서울 광진구 소재 워커힐에서 글로벌 AI 분야 선도업체와 학계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AI의 진화 방향에 대해 전망해 보는 컨퍼런스 'ai.x 2018'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SK텔레콤은 'AI-인간, 기계, 함께 경험을 쌓다'라는 주제로 900여명의 AI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AI 연구가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SK텔레콤 김윤 AI리서치센터장은 "AI가 생활 속에서 인간 중심으로 발전할 때 인간과 기계가 자연스럽게 상호 신뢰를 쌓는 경험을 갖고 함께 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6일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SK텔레콤의 AI 컨퍼런스 'ai.x 2018'에서 김윤 SK텔레콤 AI리서치센터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SK텔레콤

또한 AI 플랫폼을 개발하는 아마존웹서비스의 머신러닝 분야 브라틴 사하 부사장은 자사의 AI 엔진을 통해 탄생한 각종 서비스·제품의 적용 사례와 이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머신러닝 연구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LG화학 친환경 '공익형 태양광 발전소' 짓는다

소나무 13만 그루 효과

LG화학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서울특별시, 에너지나눔과평화와 '민간 지원 공익형 태양광 발전소'인 '희망 Green 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녹색성장위원회 김정욱 공동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종석 회장, 서울특별시 배광환 물순환안전국장, 에너지나눔과평화 김태호 대표, LG화학 박진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발전소는 총 622㎾ 규모로 건립, 약 200가구(4인 가족기준)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연간 370여 톤의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효과로 20년산 소나무 13만 그루 이상을 심은 효과와 동일하다.

20년간 태양광 전력 판매를 통해 조성될 12억4000만원(연6200만원)의 발전 수익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청소년 2000여 명을 지원하는 복지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희망Green발전소 전경. /LG화학

/김유진 기자 ujin6326@